

신천지 시설 112곳 25일까지 폐쇄 연장

광주시·전남도, 신도 관리 대폭 강화...자가격리자 특별관리 감염경로 정밀 역학조사...모든 활동 중지 위반시 고발 조치

광주시와 전남도에 신천지 시설과 신도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격리 해제된 신천지 신도가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는데다, 감염 우려가 높은 신천지 신도들간 밀접 접촉 사례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어서다.

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는 이날 신천지 관련 시설 112곳의 폐쇄 명령 기간을 25일까지로 연장했다. 시는 지난 달 27일 시설 폐쇄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오는 11일까지를 폐쇄 기간으로 정한 바 있다.

시는 또 신천지 교인과 관련해 감염 경로 등을 정밀 역학조사하고, 교인 관리도

강화한다. 시는 신천지 교인들에 대해 폐쇄 장소 외에도 모든 집회, 성경 공부, 단체 모임, 봉사활동 등을 중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등 조치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지역사회 감염병 유행을 막기 위해 신천지 교인 중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 자가 격리자는 특별 관리한다. 시는 신천지 교인 확진자의 경우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원 후 격리 기간동안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 차단하기 위해 자가 대신 생활치료센터인 소방학교 생활관에 모두 격리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천지 교인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기간을 포함해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시는 또 자가 격리자를 격리 해제하기 전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해 음성 판정이 나올 때만 해제하고, 자가 격리 기간 신천지 교인간 접촉을 하거나 단체 모임 등을 한 경우엔 즉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시는 향후 코로나19 사태를 지켜본 뒤 시설 폐쇄 연장 등 추가 조치가 나설 방침이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신천지 시설 폐쇄 기간을 연장했으며, 교인도 철저히 관리하겠다"면서 "신천지 신도들도 코로나19 예방 및 감염확산 방지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남도 역시 신천지 교회 측에 내려진 집회(예배) 금지 및 시설 폐쇄 행정명령을 오는 22일까지 연장했다.

전수조사를 통해 전남지역 신도 및 교육생 1만 6540명에 대한 중세 유무 등을 확인한 후 검사 등 조치를 취했으나, 예배 등 신도 밀집 과정에서 추가 감염이 일어나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폐쇄 대상 시설은 교회 4곳을 비롯해 복음방 등 모두 107개 관련 시설이다. 전남도는 시설 출입은 물론 예배 역시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서를 이날 신천지 측에 발송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코로나 19 확산 여부 등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행정명령 연장 등 관련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김형호 기자 khh@

한일, 상호 입국 전면통제 양국관계 악화 '코로나19' 대응 이유...관광·유학·경제교류 차질

한국과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상대방에 대한 입국규제를 강화하면서 9일부터 양국 간 이동이 전면 통제됐다. 한일 간 인적 교류 규모와 밀접한 경제관계 등을 고려하면 입국규제가 가져올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양국 관계 악화도 우려된다.

외교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9일 0시부터 한일 양국 간 사증(비자)면제가 중단됐다. 한일은 관광 목적 등 90일간 단기 체류의 경우 비자를 서로 면제하고 있는데 일본이 먼저 이를 이달 말까지 중단한다고 지난 5일 발표했다. 일본은 한국인에게 이미 발급한 비자의 효력도 정지하기로 했다.

일본에 들어가려면 새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일본이 코로나19의 급격한 확대를 고려한 '신중한 심사'를 예고해 쉽지 않을 수 있다. 입국한다해도 지정장소에서 2주간 대기하는 사실상의 격리를 견뎌야 한다.

한국은 일본의 조치에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일본인의 무비자 방문을 중단하고 기존 비자 효력을 정지했다.

정부는 일본 내 모든 공관에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에게 자필 건강상태확인서를 요구해 발급 심사를 강화했다. 다만, '흐름을 통제하되 문은 닫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일본이 시행한 '14일 대기'는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일본에서 오는 이들은 전용 입국장에서 발열검사와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국내 연락처·주소 확인 등 특별입국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미 코로나19 우려로 교류가 위축된 상황에서 양국의 이런 조치는 입국금지 배급가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국가로, 한일갈등의 여파로 많이 줄었음에도 작년에 558만 여명이 일본을 찾았다.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은 327만여명으로 중국 다음으로 많았다.

계획했던 일본 여행이나 출장을 포기하는 이들이 이미 속출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이나 유학 등에 큰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경제징용 배상판결과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로 골이 깊어진 양국 관계를 되돌리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합뉴스



코로나에 멈춰선 관광·운송사업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관광 등의 운송사업이 침체되고 있다. 9일 오후 광주 광산구 장록동의 한 버스회사 주차장에 일을 나가지 못한 관광버스들이 주차되어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북한, 여러 종류 단거리 발사체 발사

'김정은 친서' 닷새 만... '9·19군사합의 정신에 배치 유감'

북한이 9일 여러 종류의 단거리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발사체 중 3발은 최대 비행거리 200km, 고도 약 50km로 탐지돼 한미 정보 당국이 세부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7시36분경 북한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다종의 단거리 발사체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와 300mm 신형 방사포, 240mm 방사포 등을 섞어 발사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분석 중이다. 발사체 중 200km를 날아간 것으로 탐지된 3발에 대해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합참은 설명했다. 이 발사체 3발 중 첫발과 두 번째 발의 발사 간격은 20초, 두 번째와 세 번째 발 발사 간격은 1분이 넘었다. 군은 이 3발을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 CNN은 발사체가 4발이라고 보도해 3발 이상일 가능성도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일 낮 12시 37분께 원산 인근에서 동해 북동 방향으로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발사했다. 2발은 35km의 저고도로 240km를 비행했고 연발 사격 시간은 20초로 분석됐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초대형 방사포 2발

을 발사한 지 일주일 만이다. 올해 들어 두 번째 '저강도 도발'이다. 더욱이 북한의 발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싸우고 있는 남쪽 국민에게 위로의 뜻을 전달한 지 닷새만이다.

합참은 북한의 이날 발사가 동계훈련으로 시행 중인 합동타격훈련 일환으로 평가했다. 합참은 "이번 발사는 2월 28일과 3월 2일에 이은 동계훈련 일환으로 다종의 방사포가 포함된 합동타격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사 과정을 참관했을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합참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9·19 군사합의'의 기본정신에 배치되는 것으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번 발사가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에스토니아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럽지역 5개국이 5일(현지 시간) 초대형 방사포 발사에 대해 안보리 결의에 위반된다는 규탄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한 반발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연합뉴스

정부, 이란 교민 80명 이번 주 전세계 보내 데려온다

이탈리아도 주시...특별입국절차·여행경보 격상 검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는 이란 내 한국 교민을 철수시키기 위해 이번 주 전세계를 투입할 계획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이란은 전세계 탑승 희망자 파악과 항공기 수배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번 주에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란에서 제3국 항공사를 이용해 아랍에미리트(UAE)나 카타르 등 주변국으로 이동한 뒤 이곳에서 국적 여객

기로 귀국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탑승 의사를 밝힌 이란 교민은 약 80명이다. 정부는 이 중급적자와 교민의 이란 국적 가족도 데려올 수 있도록 이란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에 도착하면 임시시설에서 하루 이틀 머물며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으로 확인되면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한 결과 이란은 우

한만큼 상황이 나쁘지 않아 시설격리는 하지 않는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는 이탈리아도 주시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이미 봉쇄 조치를 한 지역 외에 일부 지역에 추가로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다. 외교부는 이동제한 지역 내에 국민 약 2천200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위당국자는 이들을 데려오기 위한 전세계 투입 필요에 대해 "항공, 교통편이 완전히 없어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여 전세계 투입은 현지 상황을 더 지켜보면서

검토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탈리아가 아무래도 급속히 상황이 악화하고 있어서 (이미 시행 중인) 중국, 일본에 추가해서 특별입국절차 적용이 필요한지 그런 상황을 보면서 검토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외교부는 이탈리아 북부 3개 주에 대해서만 2단계 여행경보(황색경보)를 발령한 상태인데 여행경보 격상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이날 오전 7시 현재 1634명의 한국 국민이 중국(1149명)과 베트남(451명) 등에 시설 격리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격리돼 있다 자가격리로 전환되거나 격리 해제된 이들은 2800여명이다.

/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회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 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공장부지 매매" (급 매)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13, 91-3
- 문평농공단지 6차선도로변
- 공장용지 14,916.9㎡, 건물 998㎡(H빔 구조)
- 태양광발전소 99kW 설치(건물 위)
- 공장, 창고, 사무실, 사위장, 화장실 시설 구비
- 건물 일부 임대 중 (보증금 2천만원/월 190만원, 약 700㎡)
- 매월 4백만원 이상 수입(임대료 및 태양광 수익) 태양광은 대출 없고 순수익 임

※ 매매가 25.5억 ※

인 하 건설(주)

010-3605-0214
062)655-4840

2020 漢字·漢文指導師資格

※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30기)	광주교육대학교(21기)
모집/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요일 오전반 2020. 3. 6(금) 09:10 (중급반) • 토요일 오전반 2020. 3. 7(토) 09:10 (고급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요일 오후반 2020. 3. 6(금) 14:10 (중급반) • 토요일 오후반 2020. 3. 7(토) 14:10 (고급반)
모집기간	2020. 1. 23(목) ~ 3. 7(토)	
수업기간	2020. 3. 6(금) ~ 2020. 8. 8(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 오전반 09:10 ~ 13:00 • 오후반 14:10 ~ 18:00	
수료후특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 취득 기회 부여 · 각 학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 학교 (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 ~ 사법) 취득 기회 부여 	
수강료	₩ 360,000(예금주: 광주여대) • 광주은행: 148-107-307803	₩ 360,000(예금주: 광주교대) • 국민은행: 773901-01-476749
원서교부 및 접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의: 062)950-3582-4 · 지도교수(선병공): 010-3614-4160 <p>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의: 062)520-4243 · 지도교수(선병공): 010-3614-4160 <p>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p>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 과정)

- 일 시: 2020. 3. 3(화) 오후 7시
- 장 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 2층)
- 수강료: 풍수·사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2020. 2. 25(화) 오후 7시.
- 장 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암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과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도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